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음 8월 7일)

제23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도, 추경 2255억원 증액

총 규모 7조7932억원 편성 도의회 제출  
미세먼지·안전투자 등에 888억원  
일자리·사회안전망 등에 1091억원

전북도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추경 대비 22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8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추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안전투자 888억원, 일자리·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긴급한 민생경제 1091억원이 증점 반영됐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793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1억원(3.7%) 증가한 6조3054억원, 특별회계는 4억원 증가한 6189억원 규모다.

도는 미세먼지 등 도민안전에 888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경유차 1만2000대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LPG 화물차 지원 등에 195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차 200대, 전주·익산·부안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13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승용차 구매에 6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수도권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지원에 12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저소득층 14만명 마스크 보급 17억원,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625개소 공기청정기 1,702대 지원에 6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에 10억원이 투입된다.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에 불법폐기물 2만3835톤 처리에 19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오염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 산불 대비를 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과 안전장비 보급, 고시원·산후조리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에 16억원이 반영됐다.

상습침수 농경지의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37억원, 급경사지 정비 2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어, 10개 시·군 노후상수도 정비에 97억원을 반영하고,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개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고창·장수지역 공공하수처리사업에 2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한 농어촌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8억원, 하수처리수 및 빗물 재이용사업 6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민생경제 지원에 1091억원을 편성했다.

직접 일자리에 138억원을 반영 5033명의 노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전북 New WAVE 지원사업으로 4개월간 500명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3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실직자·취약계층 833명의 생계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56억원이 지원된다.

농업계화교 실습 지원 2억원,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전대·한국경마축산고·한국마사고에 8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유치와 관련 수도권 이전, 신증설 등 기업의 도내투자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지역투자촉진사업에 313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에 9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마을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등 생활여건개선사업에 67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온리온 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에 3년간 182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35억원이 반영됐고, 2021년까지 3년간 430억원이 투입되는 '고군산군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금년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했다.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계, 의료, 주거, 전기요금 지원 등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에 22억원을 반영했다.

대학교 주변 주택을 매일 개보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시세의 30%수준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개보수비 9억원이 반영됐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교육 프로그램비로 284개 지역아동센터에 3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증점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억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등에 8억원이 지원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도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가 4일 시청 로비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시민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 '활기' 를

전주시, 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

전주시는 4일 시청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를 설치, 상품권 판매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 산하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6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이동판매 행사에 이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남부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전주시 전 직원과 자생단체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역 전통시장들도 추석 명절 손님맞이를 위해 주차장

을 무료 개방하고, 특별이벤트와 할인 판매, 경품지급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면서도 큰 역할"이라며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태풍 링링 북상... 전북도, 6일부터 3일간 상황 대응 나서

전북도는 서해상을 따라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는 9월 4일 9시 10분에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영

상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강풍과 호우에 따른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수해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관리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해안가 저지대 해일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사전대피에 철저를 기하고, 해안가 배수갑문 관리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한편, 항·포구에 정박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소형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팔복예술공장, 아시아 최고 경관 되다

전주시, 재생사례로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지난 2017년 첫마중길 사례 수상 이어 두 번째

폐공장을 문화예술로 재생시킨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이 도시경관분야 최고의 국제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팔복예술공장 조성 사례로 아시아 지역에서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타도시의 모범이 되는 도시·지역·사업 등에 수여하는 도시경관분야 최고 국제상인 '2019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아시아해비타트협회와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분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17년 첫마중길 조성사례로 수상한데 이

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시는 팔복예술공장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가, 공무원, 전문가들이 함께 공장 기록물을 수집하고, 지역민의 구술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간을 재생함으로써 도시와 시민의 기억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9 아시아 도시경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9일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주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3건, 중국 4건, 일본 3건, 인도 1건, 인도네시아 1건 등 총 12건이 수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개관한 팔복예술공장은 시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곳이다.

20년간 문을 닫았던 페카세트공장은 전시공간과 예술인 창작·전시공간, 주민 문화공간, 카페 등을 갖춰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시는 팔복예술공장 2단지 사업으로 현재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실내 예술교육공간(475㎡)과 실외 예술놀이터(475㎡), 예술융합공간(350㎡), 어린이놀이책방(112.5㎡) 등을 갖춘 팔복예술공장 2단지 문화예술교육센터도 조성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